

배포일시	2011. 1. 5.(수) 11:00 (총 11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담당자	과장 조진대 장기예보관 박인태
		전화번호	051-718-0423

지난 달(12월) 기상분석 결과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추운 12월이었음.
◇ 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 기온

- 부산·울산·경남지방의 12월 평균기온은 2.6℃로 평년보다 0.5℃ 낮았으나, 기온 변동 폭이 컸음. 부산의 12월 평균기온은 5.2℃로 평년보다 0.4℃ 낮아 추운 편이었음.

□ 강수량

- 12월 13일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29.9mm로 평년(21.6mm)에 비해 많았고(평년대비 138.4%), 강수일수는 4.5일로 평년(4.0일)과 비슷했음.

□ 황사

- 12월에 이틀간 황사가 발생(3일, 11일)하여 12월 황사로는 2009년(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됨.

□ 향후전망(부산·울산·경남)

- 1월 중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겠으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월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있겠으며, 경남서부내륙지방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월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음.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부산·울산·경남	평균 기온	강수량
1월 중순	평년(-2~3℃)과 비슷하겠음	평년(9~14mm)과 비슷하겠음
1월 하순	평년(-2~3℃)과 비슷하겠음	평년(6~12mm)과 비슷하겠음
2월 상순	평년(-1~4℃)보다 높겠음	평년(6~10mm)보다 적겠음

※ 첨부 : 지난 달(12월) 기상분석 결과

[첨부]

지난 달(12월) 기상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지방]

부산지방기상청
2010년 1월 5일 11:00발표

□ 12월의 기온 특징

- 기온 변동폭이 컸고, 추운 편이었음.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후반에 세 차례의 한파가 있었음.
 - 평균기온은 2.6℃로 평년보다 0.5℃ 낮았음.
 - 평균최고기온은 8.6℃, 평균최저기온은 -2.6℃로 평년보다 각각 0.7℃, 0.6℃ 낮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5.2℃로 평년보다 0.4℃ 낮았고, 평균최고기온은 9.9℃, 평균최저기온은 1.0℃로 평년보다 각각 0.4℃, 0.8℃ 낮았음.
- 12월 상순 / 5.1℃로 평년보다 0.5℃ 낮고, 기온 변동 심해
 - 평균기온은 5.1℃, 평균최저기온은 -0.7℃로 평년보다 각각 0.5℃, 0.1℃ 낮았고, 평균최고기온은 12.0℃로 평년보다 1.1℃ 높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8.2℃, 평균최고기온은 13.2℃, 평균최저기온은 3.8℃로 평년보다 각각 0.9℃, 1.1℃, 0.5℃ 높았음.
- 12월 중순 / 평년과 비슷, 한차례 한파
 - 평균기온은 2.7℃, 평균최고기온은 8.5℃, 평균최저기온은 -2.8℃로 평년보다 각각 0.2℃, 0.5℃, 0.7℃ 낮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5.2℃, 평균최고기온은 9.8℃, 평균최저기온은 0.7℃로 평년보다 각각 0.1℃, 0.2℃, 0.9℃ 낮았음.
- 12월 하순 /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평년보다 1.6도 낮아
 - 평균기온은 0.3℃, 평균최고기온은 5.6℃, 평균최저기온은 -4.0℃로 평년보다 각각 1.6℃, 2.4℃, 0.9℃ 낮았음.
 - 부산의 평균기온은 2.4℃, 평균최고기온은 7.1℃, 평균최저기온은 -1.3℃로 평년보다 각각 2.0℃, 2.1℃, 2.0℃ 낮았음.

표 1. 부산·울산·경남 12월 기온(°C)

구분	12월 전체			12월 상순			12월 중순			12월 하순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부산·경남 (평년)	2.6 (3.1)	8.6 (9.3)	-2.6 (-2.0)	5.1 (4.6)	12.0 (10.9)	-0.7 (-0.6)	2.7 (2.9)	8.5 (9.0)	-2.8 (-2.1)	0.3 (1.9)	5.6 (8.0)	-4.0 (-3.1)
부산 (평년)	5.2 (5.6)	9.9 (10.3)	1.0 (1.8)	8.2 (7.3)	13.2 (12.1)	3.8 (3.3)	5.2 (5.3)	9.8 (10.0)	0.7 (1.6)	2.4 (4.4)	7.1 (9.2)	-1.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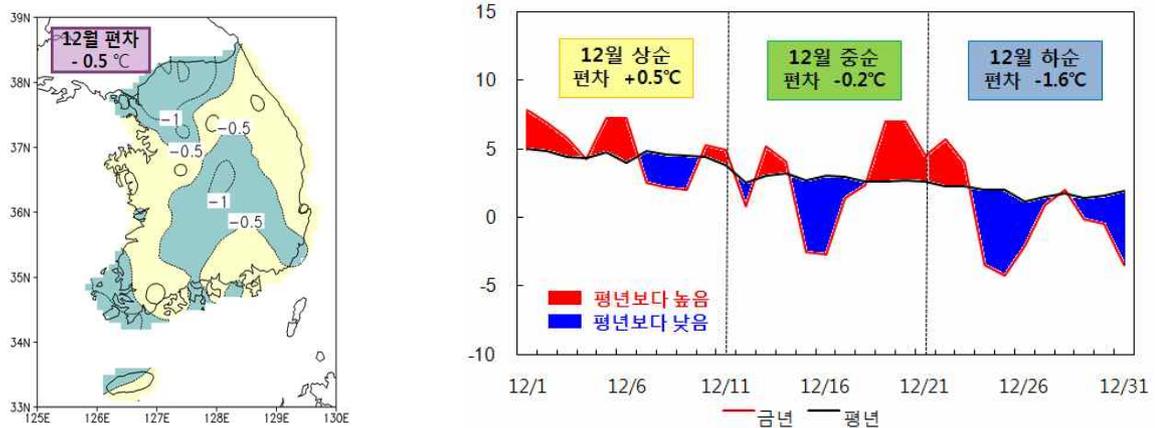


그림 1. 2010년 12월 부산·울산·경남 기온 평년편차 및 평균기온 일변화(°C)

□ 12월의 강수량, 강수일수 특징

- 13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평년보다 많아
 - 12월 평균 강수량은 29.9mm로 평년(21.6mm)보다 많았고(평년대비 138.4%), 강수일수는 4.5일로 평년(4.0일)과 비슷했음.

표 2. 2010년 12월 강수량(mm)

지명	평균	울산	창원	부산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해
강수량	29.9	30.2	21.8	38.5	31.2	22.8	30.4	21.2	19.6	27.0	42.5	35.9
평년	21.6	23.9	21.2	24.3	22.5	20.5	19.1	16.1	17.6	19.5	26.2	25.9
평년차	8.4	6.3	0.6	14.2	8.7	2.3	11.3	5.1	2.0	7.5	16.3	10.0
대비(%)	138.4	126.4	102.8	158.4	138.7	111.2	159.2	131.7	111.4	138.5	162.2	138.6

- 13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가장 많은 곳은 거제로 42.5mm가 내렸으며, 가장 적은 곳은 밀양으로 19.6mm였음.

- 12월 상순에는 2일과 8~9일 기압골 영향으로 비/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은 2.7mm로 평년(9.0mm)보다 적었고(평년대비 30.0%), 강수일수는 1.5일로 평년(1.5일)과 비슷했음.
 - 부산 강수량은 6.0mm로 평년(9.4mm)과 비슷했고(평년대비 64.0%), 강수일수는 1일로 평년(1.3일)과 비슷했음.

- 12월 중순에는 13일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많은 비가 왔음. 강수량은 24.0mm로 평년(6.2mm)보다 많아(평년대비 387.1%) 1973년 이후 네 번째로 많았고, 강수일수는 1.2일로 평년(1.1일)과 비슷했음.
 - 부산 강수량은 32.5mm로 평년(7.5mm)보다 많았고(평년대비 434.1%), 강수일수는 1일로 평년(1.4일)과 비슷했음.

- 12월 하순에는 28일과 30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에서 비/눈이 내려 강수량은 3.3mm로 평년(6.3mm)과 비슷했고(평년대비 52.4%), 강수일수도 1.8일로 평년(1.4일)과 비슷했음.
 - 부산은 강수량이 기록되지 않았음(평년 강수량 7.7mm, 강수일수 1.5일)



그림 2. 2010년 12월 부산·울산·경남 강수량 평년대비 및 일변화(mm)

□ 12월 황사 발생

- 12월 3일과 11일 황사가 발생하여 12월의 황사일수는 2일로 최근 10년 황사일수 0.4일보다 1.6일이 많았음.
- 12월 전반에 황사발원지의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상태에서, 상층의 흐름이 몽골 남쪽에서 향하는 형태가 지속됨(그림 3).
- 황사 발원지를 지나며 모래먼지를 일으킨 저기압이 상층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를 자주 통과하고, 그 후면으로 황사가 유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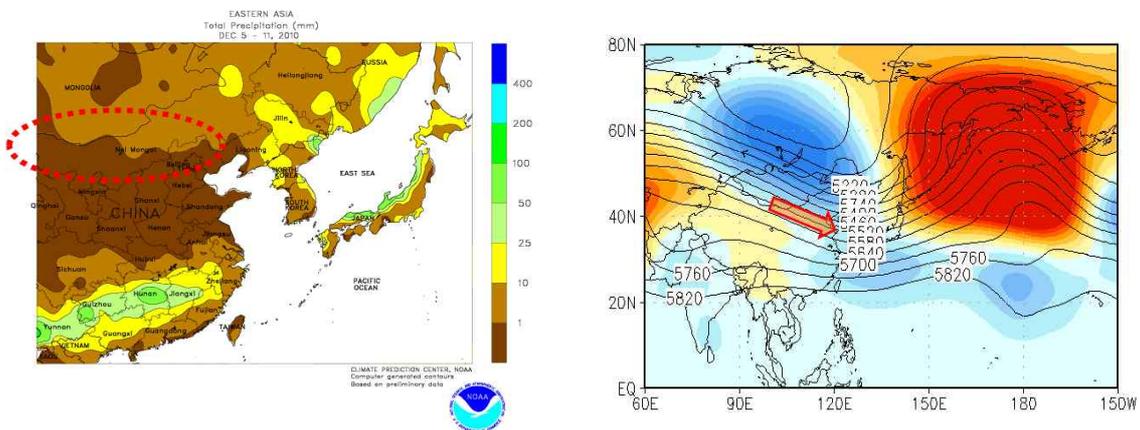


그림 3. (좌) 2010년 12월5일~11일 황사 발원지 강수량 현황과 (우) 12월1일~11일의 5km 상공의 고도장 (화살표: 상층 흐름)

표 3. 2010년 12월 황사 발생 현황

날짜	주요지점 1시간 평균 최고 먼지농도 (PM10, $\mu\text{g}/\text{m}^3$)	발원지/이동경로
12. 3.	울산 303, 구덕산 230, 진주 237	몽골/내몽골 - 발해만 - 백령도 - 전국/북한(함흥) - 일본
12. 11.	울산 186, 구덕산 173, 진주 227	몽골/내몽골 - 발해만 - 북한 - 백령도 - 전국 - 일본

□ 12월 후반 세 차례 강한 한파와 잦은 대설

- 12월 15일 이후 강한 음의 북극진동이 지속되며 북극지방의 찬 공기가 남하함(그림 4).
- 12월 15~16일, 24~26일, 30~31일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져 강한 한파가 지속되었음.

□ 12월의 기상관련 기사

<h3>부울경 오늘 '겨울 황사' 온다</h3> <p>부산기상청 예비특보 발령 바람 강하게 불고 기온 폭</p> <p>이병욱 기자</p> <p>3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황사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건강과 농작물 관리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p> <p>부산기상청은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서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2일 밤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돼 3일 아침 부산 울산 경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황사 예비특보를 2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황사 예비특보는 3시간 이내엔 황사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되는 것으로,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400㎍/㎥, 8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p> <p>기상청은 이번 한파는 올해 겨울 북극의 찬 공기를 가져오는 제트기류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출렁도 지방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겨울 무리나온가 조근한 날씨와 육한의 추위가 반복되며 콜라보스트를 타고 있는 것은 한파인가 북극 찬 공기 남하의 기상지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p> <p>올 겨울 부산지역의 날씨도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7.1도, 낮 최고기온이 15.8도까지 올라가는 등 1년기온을 크게 웃도는 현상을 보였다.</p> <p>기상청은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져 내년 1월에 초전반으로 평년기온을 웃출것으로 3~4차례 열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p> <p>박진홍 기자 jhp@</p> <p>출처 부산일보 1면 2010.12.03 09:28:00</p>	<h3>사회 '성탄절 한파' 날씨 왜 이러나</h3> <p>11.25.25</p> <p>북극 찬풍과 지구온난화 영향</p>  <p>성탄절인 25일 부산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등 한파가 몰아쳤다.</p> <p>부산기상청은 부산지역은 이날 낮 최고기온도 영상 2도에 그치고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하루종일 영하라고 머물렀다고 밝혔다.</p> <p>오늘 부산 영하 8.1도 북극 찬풍이 남아 환한</p> <p>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출산도 각각 영하 8.3도와 8.5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중남 내륙지역인 함천이 영하 11.2도, 거창 영하 10.4도까지 추운 추위를 보였다.</p> <p>이 같은 한파로 부산지역에서는 가정집 수도관이 동파되는 등 한파 피해가 잇따랐다.</p> <p>기상청은 26일에도 부산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5도에 머무는 등 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27일부터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p> <p>기상청은 이번 한파는 올해 겨울 북극의 찬 공기를 가져오는 제트기류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출렁도 지방으로 남하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겨울 무리나온가 조근한 날씨와 육한의 추위가 반복되며 콜라보스트를 타고 있는 것은 한파인가 북극 찬 공기 남하의 기상지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p> <p>올 겨울 부산지역의 날씨도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7.1도, 낮 최고기온이 15.8도까지 올라가는 등 1년기온을 크게 웃도는 현상을 보였다.</p> <p>기상청은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져 내년 1월에 초전반으로 평년기온을 웃출것으로 3~4차례 열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p> <p>박진홍 기자 jhp@</p> <p>출처 부산일보 1면 2010.12.25 09:28:00</p>	<h3>감천항 앞바다서 어선 전북 부산해경, 선장 구조</h3> <p>정홍주 기자</p> <p>28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항 앞 동항분리대 서쪽 1km 해상에서 1t짜리 선외기 어선이 뒤집혀 있는 것을 인근을 항해하던 유조선(188t급)이 발견해 부산해경에 신고했다.</p> <p>해경은 곧바로 50t급 경비정을 보내 어선 위에 간신히 대피해 있던 선장 이모(55) 씨를 구조했다.</p> <p>해경은 높은 파도에 배가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p>																																			
<p>2010.12.03. 국제신문</p>	<p>2010.12.25. 부산일보</p>	<p>2010.12.29. 국제신문</p>																																			
<h3>이번주 내내 출다 부산 계속영하권</h3> <p>28일에만 반박 영상권</p> <p>이병욱 기자 jhp@kookjeil.com</p> <p>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대서온 한파가 몰아칠 전망이다.</p> <p>부산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2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9도를 기록, 지난 24일부터 3일 연속 영하의 날씨가 이어졌다. 부산지역은 27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에 머무르면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7일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 28일에는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5도를 기록하겠으나 28일 또다시 영하 2도로 떨어질 것으로 29일까지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p> <p>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지난 27일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화재 예방은 물론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피해가 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p>	<h3>'이상한 사계' 을 한반도 몸살</h3> <p>기상청 이상기후 보고서</p> <p>이병욱 기자 jhp@kookjeil.com</p> <p>올해 우리 나라의 지구 온난화와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 변화, 어룡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례적 발달 등의 원인으로 각종 이상기후가 나타나 각 분야에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기상청은 녹색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기상청과 녹색성장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모두 16개 기관이 참여했다.</p> <p>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서울에 25.4mm의 폭설이 내렸다. 이는 1957년 기상관측 이래 서울의 하루 적설량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는 전국적으로 이상저온 현상이 지속됐다. 이 기간 전국의 평균 최저기온은 1.973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 9월 1일에는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하면서 20년 만에 도리가 결빙되기도 했다.</p> <p>어룡철 92일 가운데 81일간의 전국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폭염이 지속됐는데 7월 8일 대구 '현' 무'의 내습 이후 한 달 동안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p> <p>부산의 경우 6월 8일 평균 최저기온이 19.4도와 25.8도로 190년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고, 9월에는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p> <p>2010년 이상기후 열람대</p>  <p>8월 11일 부산 앞바다에 떠돌던 연무 1월 4일 서울 도심에 25.4mm의 폭설</p> <table border="1"> <tr><td>1월 4일</td><td>서울 적설량 25.8mm</td><td>6월 8일</td><td>대전 폭설 110.1mm</td></tr> <tr><td>3월 10일</td><td>대전 폭설 110.1mm</td><td>7월 8일</td><td>대구 폭염 35.6도</td></tr> <tr><td>4월 15일</td><td>대전 폭설 110.1mm</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r><td>6월 8일</td><td>대전 폭설 110.1mm</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r><td>7월 8일</td><td>대전 폭설 110.1mm</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r><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r><td>10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r><td>11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r><td>12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d>9월 1일</td><td>부산 폭염 35.6도</td></tr> </table> <p>서울 관측 사상 최대 '눈폭탄' 8월 한달간 태풍 3개 내습 폭염 폭설 한파-기후경쟁 심속 경제적 피해 2조 4000억 추정</p> <p>은이 각각 역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은 8월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역대 이 현상이 무려 24일이나 나타나서 역대 1위 값을 경신했다.</p> <p>이 같은 이상기후는 농업과 산업, 환경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상한파와 폭설로 인해 피남와우스 13385에 파손되고, 인삼과 버섯재배시설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저온 현상은 월동작물 생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립면적의 38%(1만 400ha)가 피해를 입었다. 또 태풍 '몬파스'의 영향으로 출수가 비 폭수 피해면적이 1만 5022ha에 달했고, 낙과 등으로 인해 과실 수확량도 크게 떨어졌다.</p> <p>국토해양 당국 분야에서도 이상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해 모두 2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1월 4일 폭설로 수도권 전동차 운행 중단 및 지선이 전계 운행체계의 8.2%에 이르는 537회와 집중호우로 7명이 사망하고, 1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몬파스' 등 3개 태풍의 영향으로 7명이 사망하고 107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p> <p>기상청 관계자는 '개도개신과 기후 변화 및 인프라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막아 야한다'고 말했다.</p>	1월 4일	서울 적설량 25.8mm	6월 8일	대전 폭설 110.1mm	3월 10일	대전 폭설 110.1mm	7월 8일	대구 폭염 35.6도	4월 15일	대전 폭설 110.1mm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6월 8일	대전 폭설 110.1mm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7월 8일	대전 폭설 110.1mm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0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1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2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월 4일	서울 적설량 25.8mm	6월 8일	대전 폭설 110.1mm																																		
3월 10일	대전 폭설 110.1mm	7월 8일	대구 폭염 35.6도																																		
4월 15일	대전 폭설 110.1mm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6월 8일	대전 폭설 110.1mm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7월 8일	대전 폭설 110.1mm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0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1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12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9월 1일	부산 폭염 35.6도																																		
<p>2010. 12. 27. 국제신문</p>	<p>2010. 12. 29. 국제신문</p>	<p>2010. 12. 29. 국제신문</p>																																			

□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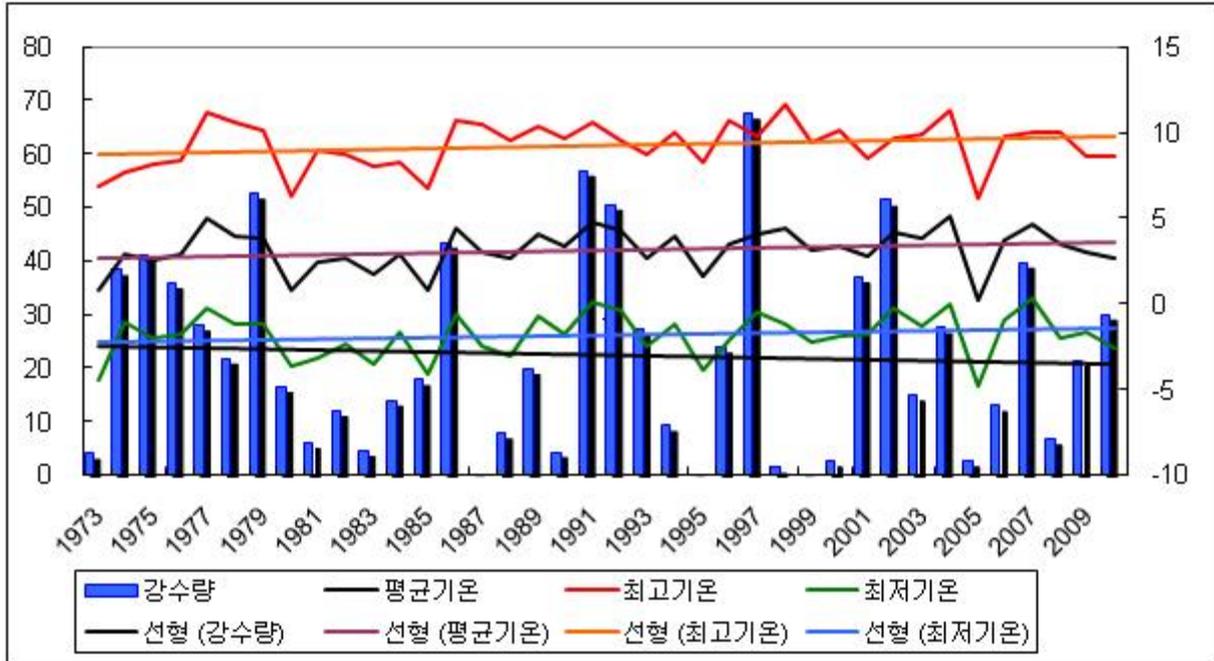
- 1월 중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겠으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1월 하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있겠으며, 경남서부내륙지방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월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음.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므로 건강관리에 유의.

부산울산경남	평균 기 온	강 수 량
1월 중순	평년(-2~3℃)과 비슷하겠음	평년(9~14mm)과 비슷하겠음
1월 하순	평년(-2~3℃)과 비슷하겠음	평년(6~12mm)과 비슷하겠음
2월 상순	평년(-1~4℃)보다 높겠음	평년(6~10mm)보다 적겠음

- ※ [붙임1] 부산·울산·경남지방의 12월 기상분석자료
- [붙임2] 부산의 12월 기상분석자료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73-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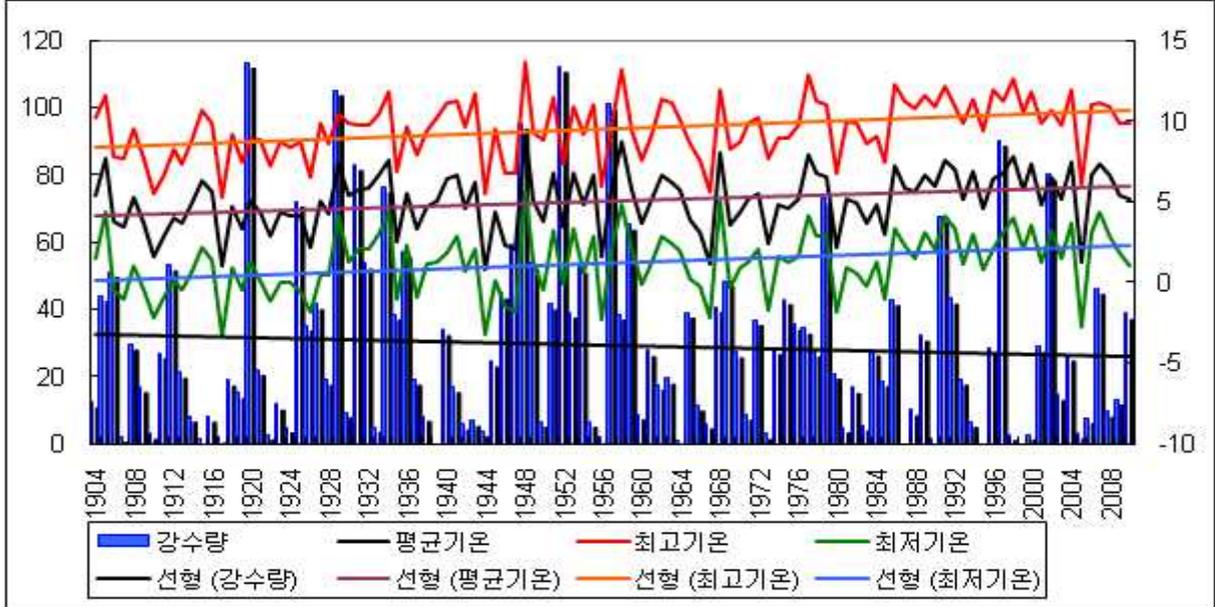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울산·경남)	2010년 (a)	평년대값 (1971-2000) (b)	a-b	1973년 이후 순위(5위까지만)
평균기온(°C)	2.6	3.1	-0.5	-
평균 최고기온(°C)	8.6	9.3	-0.7	-
평균 최저기온(°C)	-2.6	-2.0	-0.6	-
강수량(mm)	29.9	21.6	+8.3(138.4%)	-
강수일수(일)	4.5	4.0	+0.5	-
일조시간(hr)	183.0	191.2	-8.2(95.7%)	-
상대습도(%)	56.4	63.0	-6.6	-
일교차 10°C 이상 일수	18.1	18.2	-0.1	-
일최저 0°C 미만 일수(일)	22.3	21.3	1.0	-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상대습도 (%)	일교차 10°C 이상 일수(일)	일최저 0°C미만 일수(일)
1973-1980년(a)	2.8	8.7	-2.0	29.7	4.9	196.5	66.0	17.0	21.6
1981-1990년(b)	2.8	9.2	-2.4	12.9	3.8	193.0	63.6	18.7	22.0
1991-2000년(c)	3.6	9.9	-1.6	23.9	3.6	185.6	59.8	18.8	20.3
2001-2010년(d)	3.4	9.3	-1.5	24.3	4.3	182.8	56.7	17.0	20.3
d-a	0.6	0.6	0.5	-5.4	-0.6	-13.7	-9.3	0.0	-1.3
d-b	0.6	0.1	0.9	11.4	0.5	-10.2	-6.9	-1.7	-1.7
d-c	-0.2	-0.6	0.1	0.4	0.7	-2.8	-3.1	-1.8	0.0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평균 강수량(1904-2010년)



□ 평년대비 기상요소 값

요소(부산)	2010년 (a)	평년대비 (1971-2000) (b)	a-b	1904년 이후 순위(5위 까지만)
평균기온(°C)	5.2	5.6	-0.4	-
평균 최고기온(°C)	9.9	10.3	-0.4	-
평균 최저기온(°C)	1.0	1.8	-0.8	-
강수량(mm)	38.5	24.3	14.2(158.4%)	-
강수일수(일)	2.0	4.3	-2.3	-
일조시간(hr)	203.4	203.3	0.1(100.0%)	-
상대습도(%)	47.4	52.9	-5.5	-
일교차 10°C 이상 일수	11.0	8.0	3.0	-
일최저 0°C 미만 일수(일)	12.0	10.1	1.9	-

□ 연대별 기상요소 값

연도	평균 기온 (°C)	평균 최고기온 (°C)	평균 최저기온 (°C)	강수량 (mm)	강수일수 (일)	일조시간 (hr)	상대습도 (%)	일교차 10°C이 상 일수	일최저 0°C미만 일수(일)
1904-1910	4.4	8.6	0.4	22.6	4.7	199.6	49.9	6.3	16.3
1911-1920년	4.1	8.2	0.1	26.7	4.7	189.6	50.8	5.9	15.0
1921-1930년	4.4	8.7	0.3	32.3	6.3	199.2	54.2	8.1	16.0
1931-1940년(a)	5.3	9.7	1.6	37.4	6.8	208.8	53.6	6.3	10.4
1941-1950년	4.5	9.3	0.6	31.6	5.8	198.0	51.6	10.1	15.5
1954-1960년	5.4	9.6	1.7	46.6	5.1	190.2	53.4	5.0	11.4
1961-1970년	4.8	9.2	1.2	23.7	3.6	198.0	52.3	5.8	12.4
1971-1980년(b)	5.1	9.7	1.4	31.0	4.7	193.5	54.5	7.8	12.3
1981-1990년	5.3	10.2	1.4	15.9	4.1	212.3	54.0	8.7	10.7
1991-2000년	6.5	11.2	2.7	25.9	4.0	204.1	50.2	7.4	7.4
2001-2010년(c)	5.6	10.1	2.0	26.7	4.4	196.5	46.1	7.1	10.9
c-a	0.3	0.4	0.4	-10.7	-2.4	-12.3	-7.5	0.8	0.5
c-b	0.5	0.4	0.6	-4.3	-0.3	3.0	-8.4	-0.7	-1.4

<용어해설>

- '부산·울산·경남'의 의미는 10개 관측지점의 자료를 평균한 것임. 예를 들어 금년 12월의 강수량 29.9mm의 의미는 10개 지점의 12월 강수량을 평균한 값임.
- 평년값은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 평균값임.
- 부산·울산·경남 평균은 1973년부터 신설된 관측지점(10개 지점)을 평균한 값임.

<연대 예시>

- 1970년대: 1971년부터 1980년까지를 의미
- 2000년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의미